| 우리학회 발자취 |

한국진공학회의 역사 – 3

[교류의 장,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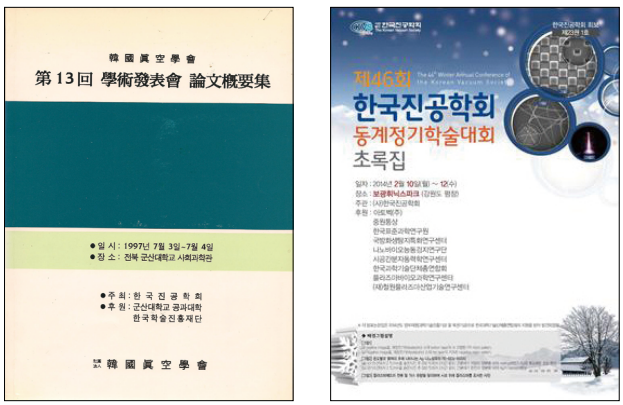
주정훈 | 총무이사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가끔 심포지엄(symposium)과 컨퍼런스(conference), 워크샵(workshop)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사전을 찾아보면 고대 그리이스에서 유래한 심포지엄은 같이(sym) 마신다(posium)는 뜻으로 로마에서는 라틴어로 convivium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이스의 심포지엄은 좋은 가문 출신 남자들의 모임으로 주로 우리나라 사랑방에 해당하는 주택의 남자들 공간에서 열렸으며 종종 운동경기의 승리, 시짓기 대회의 결과를 자축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고 젊은 남자들을 귀족 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주로 수십 명 이내의 사람들이 안락의자에 앉아서 즐겼으며 젊은 사람들은 서 있다고 한다. 삼십명 정도가 표준적인 drinking group의 규모 였다고 하니 우리 학회의 제일 작은 세션 정도 되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세션 때 술 대신 커피와 차를 제공하고 간친회 때에는 진짜 drinking을 하니까 학회의 원조라고 하는 그리이스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symposiarch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그날의 와인 강도를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로 말하자면 학회장(chairman)이 간친회의 주류 %를 정한다고 할까.

인사의 말씀

今年 2月 22日 大田에서 歷史的인 韓國眞空學會 創立發起人 大會가 열려 念願하던 韓國眞空學會가 誕生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 發展의 一翼을 擔當하게 되었읍니다. 이래 熱烈한 會員 여러분과 有關 諸位의 激勵와 支援에 힘입어 學會는 會則을 가다듬고 理事會, 幹事會 등 學會의 基本 運營體制를 構築하고 마침내 1991年 7月 5-6日에 걸쳐 서울에서 "韓國眞空學會 創立記念 심포지움 및 第1會 定期總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다 함께 기뻐하고 祝賀하고자 합니다. 이 심포지움은 그야말로 眞空學會로서는 첫 學術大會로 滿天下에 debut하는 만큼 眞摯하게 精誠을 다 기울여서 組織하였읍니다.

[Fig. 1] 1991. 7. 5 제1회 한국진공학회 학술대회 회장 인사 말씀



[Fig. 2] 1997년 제13회와 2014. 2 제46회 학술대회 때의 초록집 표지

대개의 국내학회들은 일 년에 한두 번의 학술대회를 연다. 봄, 가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 여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진공학회는 겨울과 여름에 학술대회를 하는데 주로 겨울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을 여름은 수려한 산수를 찾아서 지방으로 다니고 있다. 1991년 7월 5일에 개최된 제1회 학술대회 때의 인사말씀을 보면 3.1 기미 독립 선언서 스타일의 전형적인 국한영문 혼용체이다. 초록

〈저자 약력〉

주정훈 교수는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KIST, GoldStar Electron 반도체 연구소를 거쳐 1992년부터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 2005–2006 미국 New York의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객원교수, 2012–2013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현재 〈플라즈마 융합 공학 대학원〉 학과장, 한국진공학회 정회원(1993년~)이며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jhjoo@kunsan.ac.kr)

집의 커버 페이지 디자인을 보자. 1997. 7에 군산대학교에서 개최했던 제13회 때의 초록집과 2014. 2에 개최한 제46회 때의 초록집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지난 호에 게재했던 학술지 표지의 변화와 함께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 초록집의 표지에도 세월의 변화가 역력히 보이고 있다. 참가 인원수와 논문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현재는 동계의 경우 논문 500편에 등록인원 800명에 달하고 있다. 18년 전의 학회 모습에서는 현재는 거의 정년을 하신 분들의 패기 어린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3). 우리 학회는 이제 당시에 젊은 진공 과학자 상을 수상한 학생이 중견 교수가 되어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이스에서 젊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변화하는 학문의 발전에 맞추어서 진공학회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음 호에는 "숫자로 보는 학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학회의 변화를 느껴 보도록 하겠다.

[Fig. 3] 1997. 7. 4 제13회 정기 학술 대회를 마치고 촬영한 학회 임원분들
(앞줄 왼쪽부터: 성균관대 이순보, 연세대 황정남, 서울대 우종천, 성원에드워드 김중조, 전북대 고 김영기, 경북대 박동수, 연세대 정중현, 미상, 미상, 두번째 줄 왼쪽부터: 동국대 강태원, 경희대 정관수, 제주대 최치규, 대아진공, 표준연 정광화, 미상, 일본인 초청연사, 서울대 황기웅, 미상, 고려대 민석기, 맨 뒷줄 왼쪽부터: 미상, 미상, 서울대 국양, 성균관대 박종윤, 군산대 주정훈, 표준연 문대원, 충북대 강희재, 광주과기원 박성주, 서울대 황용석, 일본인 초청연사)